

진로에 대한 인식과 발달이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진로선택은 그 어느 발달 단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uzzo, 1993).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상급학교 진학 및 직업 선택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직면하는 시기이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특성과 장기적인 진로 계획에 의해 고등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여전히 중학교 성적이나 가정환경에 의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어, 교과에 대한 흥미상실이나 학교에 대한 불만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들이 급증하였다(금명자, 2008). 또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학벌위주의 사회분위기에서 합격위주의 대학 진학을 하고 있으며 뒤늦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이러한 현상은 전공과 적성간의 불일치와 불투명한 취업과 같은 진로문제에 직면하게 한다. 학업과 진로선택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

한 긴장과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켜 정신적, 신체적 불안정과 불균형을 초래하며 우울과 자살 등으로 이어지게 하고, 진로 문제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영신 등, 2000).

그러므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여 추구해나가는냐의 문제는 진로 그 자체에 대한 만족 뿐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과도 결부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학이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진로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이 필요하며, 이는 더 나아가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과 안녕감 이론을 통합한 Lent와 Brown(2008)의 통합사회인지 진로모형은 삶에 대한 만족, 진로만족, 긍정적·부정적 정서라는 주관적 안녕의 요인들을 진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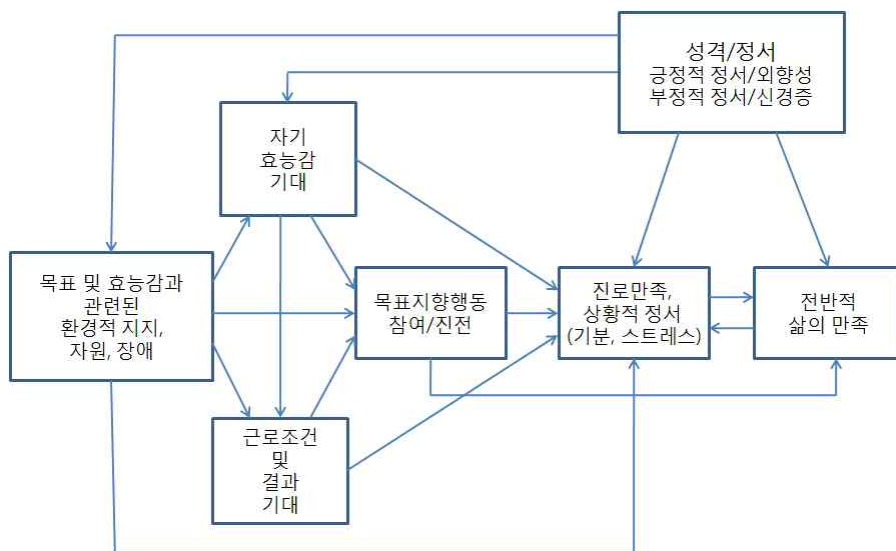


그림 1. 통합 사회인지 진로 모형(Lent & Brown, 2008)

구로 통합하는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모형은 환경적 지지, 자기 효능감, 결과기대 및 목표지향 행동과 같은 사회인지 진로변인 외에 주관적 안녕감 변인인 성격·정서적 특질, 진로 만족 및 삶의 만족도 함께 다루며, 정서·인지·환경적 변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로 만족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각각의 경로들은 선행연구들(Lent et al., 2005; Lent, Singley, Sheu, Schmidt, & Schmidt, 2007; Lent, Taviera, Sheu, Singley, & Hennessy, 2006)을 통해 지지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전체 모형이나 모형의 부분을 검증한 연구들이 거의 없고, 선행 연구들도 학업 만족이나 대학생들의 적응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모형 전체나 부분 연구가 다양한 연구대상에게 적용되어 경험적 타당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 정미예와 조남근(2011, 201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Lent와 Brown(2008)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지만, 고등학생들 삶에서의 진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구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설정된 모형이므로,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변인들을 통한 모형을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ent와 Brown(2008)을 토대로 하되,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처한 상황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와 관련된 정서·인지·환경적 변인들을 탐색·선정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Lent와 Brown(2008) 모형의 한국 고등학생에게의 적용가능성을 확

인하고, 기존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더 나아가 주관적 안녕감을 진로상담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 이러한 평가는 삶에 대한 만족을 판단하는 인지적 판단과 정적 감정 또는 부정 감정에 대한 정서적 평가를 포함한다(Diener et al., 1999). 삶의 만족은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 차원이기도 하며,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측정변인으로 알려져 있다(Lightsey & Boyraz, 2011; Pavot & Diener, 2008). 또한 Lent와 Brown은 진로행동에 있어서 정서적 요인의 개입을 특질적 정서와 상황적 정서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긍정적·부정적 정서는 보다 안정적인 특질적 정서로서, 자기효능감의 지각이나 환경적 요인들의 평가와 같은 인지적 과정 뿐 아니라 직접적인 진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과정을 통해 작용한다. 반면, 상황적 정서는 진로 만족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경험되는 감정으로서 그 예로 진로 관련 상황에서 느끼는 기분(mood)이나 스트레스(stress)로 들었다. 한국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의 부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심리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이나 진로선택이라는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어 성별, 학년,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장래 진학이 최우선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오선향, 2002). 따라서 진로 선택과정에 있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결과로서의 상황적 정서로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진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선행연구들(김경욱, 조윤희, 2011; 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 이숙정, 유지현, 2008; 장혜주, 2012)을

통해 진로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이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나타난 만큼 진로 선택을 앞둔 한국의 고등학생의 진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 스트레스는 자기인식 및 탐색, 결단성, 진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 낮출 수 있고(마미영, 정태연, 2005; Brustein, 1993; Eliot, Sheldon, & Church, 1997),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과 진로 자기효능감은 진로목표 및 목표 추구활동을 자극함으로써(기영락, 2010; 박고운, 이기학 2007; 이현주, 2011; Gainor & Lent, 1998; Lent, Brown, Schmidt, Brenner, & Treistman, 2003) 직·간접적으로 진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내은, 2003; Kenny & Rice, 1995). 이와 같이 사회인지적 진로변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삶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로발달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Cheatam, 1990; Gati, Garty, & Fassa, 1996).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도 가족변인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상호간의 관계, 가정의 분위기 및 사회경제적 상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김영혜, 2013).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의 맥락적 변인으로서의 환경적 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원은 부모이다(Furman & Buhrmester, 1992; Tunner et al., 2003). 부모는 자녀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통해 진로발달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을 통해 자아정체감 및 직업 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양과 달

리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계 위주의 한국문화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는 자녀의 성취를 위해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할 뿐 아니라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자녀들 또한 부모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심정으로 이에 부응하려고 한다(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상호의존적인 한국 가족문화의 특성으로, 부모는 자녀가 진로방향을 정하고, 대학 전공 및 직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과도한 성취압력은 진로목표를 세우는데 효능감을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진로결정에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박재현, 2003; 정소미, 2011; 정지선, 2007; 최신아, 2010).

하지만 부모-자녀간 유대감이 좋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성취압력을 지각하는 정도가 낮았다(김영혜 2013; 최은지, 2004).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기반으로 얻은 격려와 지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하여 진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목표에 도달하려는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Ferry, Fouad, & Smith, 2000; Rosenthal, 1995). 이로서 자녀간의 유대적 관계는 자녀의 성취압력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계는 진로변인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김지현, 하문선, 김복환, 2011; 이순성, 2010; 황정규, 1997), 진로계획(이연옥, 2011), 긍정적 정서(김보영, 2007; 이현정, 2008)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보고되었다. Lent와 Brown(2008)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진로나 삶의 만족에 각각 정적,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지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독립적인 차원이므로(권석만, 2008; Diener & Emmons, 1984; Watson et al., 1998), 개인의 내외적 자원 및 스트레스,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Fredrickson, 2001) 긍정적 정서만을 변인으로 선정하여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상호의존적인 가족문화에서 비롯된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성취압력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및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서 및 사회인지 진로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학부모 및 학생들의 진로상담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진로 스트레스가 매우 높으며, 부모의 높은 기대와 간섭으로 인해 그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는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성취압력을 선

정하고, 사회인지 진로변인인 진로 자기효능감과 목표지향 행동, 긍정적 정서, 진로 스트레스, 삶의 만족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Lent와 Brown(2008)은 환경적 지지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진로 변인들을 자극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국내 연구들에서 환경적 변인에 해당하는 부모-자녀 관계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김의철, 박영신, 2004; 김정연, 정현주, 2008) 또는 직·간접적으로(김혜원, 홍미애, 2007;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있어 환경적 변인에 해당하는 부모-자녀 관계가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여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Lent와 Brown(2008) 모형을 토대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삶의 만족으로의 간접 경로만을 설정한 연구모형과 직접적 경로를 추가한 경쟁모형 중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각각 그림 2,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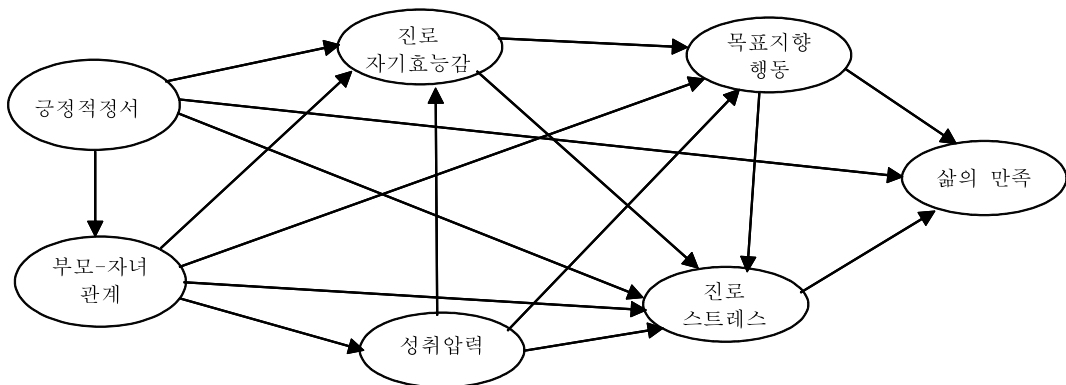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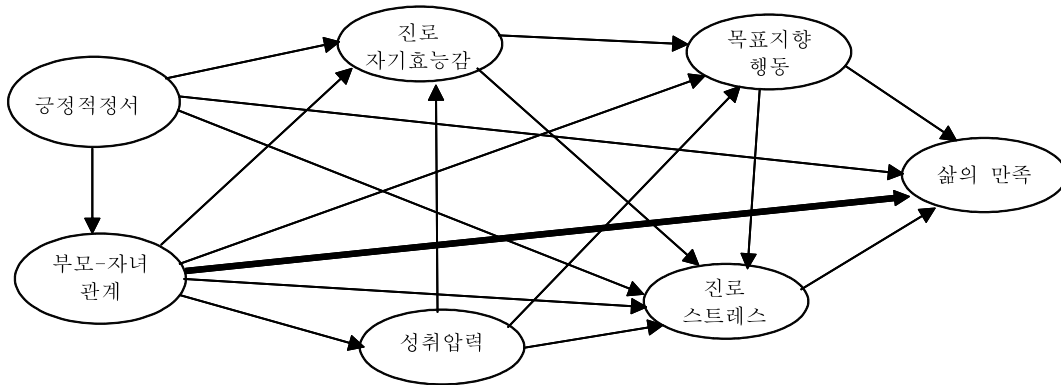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고등학생으로 9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846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무성의하게 응답한 4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804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남학생 363명(45.1%), 여학생 441명(54.9%)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394명(49.0%), 2학년 376명(46.8%), 3학년 34명(4.2%)이었다.

측정도구

삶의 만족

Diener, Emmons, Larsen 및 Criffin(1984)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를 이은경(200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개인의 생활에 만족하는 상태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7점 척

도를 사용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 7=매우 그렇다). 높은 점수는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경(2004)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85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7이었다.

진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류미화(2002)의 진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 스트레스는 졸업 후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고등학교 생활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이 척도는 일반적 요인에 의한 진로 스트레스 10문항과 가정환경 요인에 의한 진로 스트레스 5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3점 척도(1=그렇지 않다 ~ 3=아주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두 하위요인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76, .68, 전체 .78이었다.

긍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등(1988)이 개발한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ale(PANAS)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최경아(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많이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를 재는 1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최경아(2012)의 긍정적 정서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88이었다. 본 연구의 긍정적 정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87이었다.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간 유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인재(2007)의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밀 영역 7문항, 헌신 영역 6문항, 존경 영역 4문항, 엄격 영역 3문항이며, 엄격 영역의 3문항은 역채점하며 '허용'으로 표기하였다. 각 문항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점수의 평균값을 문항별 점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유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인재(2007)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친밀 .92, 헌신 .89, 존경 .87, 엄격은 .79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90, .89, .86, .72, 전체 .89였다.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강영철(2003)이 타당화 한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 없이 단일변인이며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강영철(2003)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2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진로 자기효능감

진로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를 대학생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를 포함해서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은경(2001)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개 요인이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목표선택 .76, 직업정보 .64, 문제해결 .79, 미래계획 .78, 전체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0, .77, .65, .76, 전체 .93이었다.

목표지향 행동

목표 지향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애(2009)의 진로목표 추구활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진로목표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이다(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목표가 구체적이고 확고하며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73, .89, 전체 .90이었다.

분석 방법

긍정적 정서, 부모-자녀 관계, 성취압력, 진로 자기효능감, 목표지향 행동, 진로 스트레스,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단,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가운데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비교와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실시하여 신뢰구간 95%에서 직,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긍정적 정서는 부모-자녀 관계($r=.20, p<.01$), 진로 자기효능감($r=.32, p<.01$), 목표지향 행동($r=.28, p<.01$), 삶의 만족($r=.34, p<.01$)과 낮은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진로 스트레스와는 낮은 정도의 부적상관($r=-.12, p<.01$)을 성취압력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r=.01, p>.05$). 부모-자녀 관계는 진로 자기효능감($r=.32, p<.01$), 목표지향 행동($r=.20, p<.01$), 삶의 만족($r=.36,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성취압력($r=-.24, p<.01$)과 진로 스트레스($r=-.19, p<.01$)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성취압력은 진로 스트레스($r=.30, p<.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삶의 만족과는 부적상관($r=-.14, p<.0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 자기효능감($r=-.05, p>.05$)과 목표지향 행동($r=.01, p>.05$)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진로 자기효능감은 목표지향 행동과는 유의한 높은

정도의 정적상관($r=.60, p<.01$)을, 삶의 만족과는 유의한 중간정도의 정적상관($r=.41, p<.01$)을, 진로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중간정도의 부적상관($r=-.41, p<.01$)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 행동은 삶의 만족과 정적상관($r=.35, p<.01$)을 진로 스트레스와 부적상관($r=-.22, p<.01$)을 나타내었다. 진로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과 유의한 낮은 정도의 부적상관($r=-.39, p<.01$)으로 나타났다.

측정 모형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49, N = 804) = 881.01, p < .000; CFI = .922, TLI = .900, RMSEA = .078(90\% CI: .073-.083)$.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은 긍정적 정서 .82-.96, 부모-자녀 관계 .54-.85, 진로 자기효능감 .52-.91, 목표지향행동 .69-.80, 진로 스트레스 .61-.68, 부모의 성취압력 .91-.93, 삶의 만족 .71-.89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1개의 측정변인으로 7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잠재변인 간 상관은 -.38-.43으로 나타났다($p < .01$).

모형 검증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를 위해 각 모형간의 χ^2 값의 차이를 비교하고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TLI, CFI 지수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계수 행렬(n=8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1																			
2	.20**	1																		
3	.17**	.67**	1																	
4	.20**	.71**	.73**	1																
5	.00	.45**	.34**	.28**	1															
6	.20**	.91**	.86**	.86**	.57**	1														
7	.01	-.23**	-.09**	-.10**	-.45**	-.24**	1													
8	.25**	.31**	.25**	.25**	.19**	.32**	-.09**	1												
9	.31**	.31**	.26**	.26**	.16**	.31**	-.02	.75**	1											
10	.17**	.17**	.18**	.21**	.11**	.20**	.00	.40**	.44**	1										
11	.32**	.27**	.08**	.18**	.05	.20**	-.01	.71**	.66**	.38**	1									
12	.32**	.33**	.25**	.28**	.17**	.32**	-.05	.94**	.87**	.56**	.82**	1								
13	.28**	.22**	.09**	.18**	-.01	.17**	.02	.47**	.50**	.24**	.52**	.53**	1							
14	.20**	.20**	.19**	.17**	.11**	.21**	-.04	.66**	.55**	.25**	.47**	.65**	.55**	1						
15	.28**	.23**	.12**	.19**	.02	.20**	.01	.55**	.55**	.26**	.55**	.60**	.58**	.70**	1					
16	-.15**	-.16**	.00	-.08**	-.20**	-.13**	.19**	-.40**	-.29**	-.11**	-.41**	-.40**	-.20**	-.21**	-.22**	1				
17	-.03	-.21**	-.11**	-.14**	-.32**	-.23**	.37**	-.26**	-.20**	-.17**	-.20**	-.25**	-.08**	-.19**	-.11**	.41**	1			
18	-.12**	-.21**	-.04	-.12**	-.30**	-.19**	.30**	-.41**	-.30**	-.16**	-.40**	-.41**	-.19**	-.24**	-.22**	.91**	.73**	1		
19	.34**	.40**	.18**	.36**	.18**	.36**	-.14**	.36**	.35**	.20**	.42**	.41**	.34**	.28**	.35**	-.37**	-.27**	-.39**	1	

**p<.01, *p<.05, 1. 긍정적경시, 2. 친밀, 3. 헌신, 4. 존경, 5. 허용, 6. 부모-자녀관계 문제, 7. 부모의 성취압력, 8. 목표선택, 9. 직업정보, 10. 문제해결, 11. 미래계획, 12. 진로자기효능감 문제, 13. 준비행동, 14. 목표행동, 15. 목표기행행동 문제, 16. 일반적 요인에 의한 진로스트레스, 17. 가정환경요인에 의한 진로 스트레스, 18. 진로스트레스 문제, 19. 삶의 만족

표 2. 연구모형,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χ^2	df	p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AIC
연구모형	926.47	154	.000	.898	.917	.079 (.074-.084)	1038.47
경쟁모형	890.13	153	.000	.902	.921	.077 (.073-.082)	1004.13

$\Delta df=1, \Delta \chi^2=36.34, p<.05$

와 RMSEA 값에 있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을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 중 간명적합도 지수인 AIC는 모형이 각 추정계수에 필요한 적합도에 최대한 도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간명성이 우수한 모형임을 알려주는 지수(김계수, 2007)로 본 결과에서 경쟁모형이 연구모형보다 더 낮은 AIC 지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값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Delta \chi^2=36.34, \Delta df=1, p<.05$) 전반적인 적합도지수를 비교하고 AIC

지수도 고려한 결과 경쟁모형이 연구모형 보다 더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경쟁 모형의 모수 추정

경쟁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진로스트레스, 부모-자녀관계→목표지향 행동, 부모-자녀관계→진로스트레스, 성취압력→진로자기효능감, 성취압력→목표지향행동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4와 표 3과 같다.

특히 목표지향 행동이 진로 스트레스에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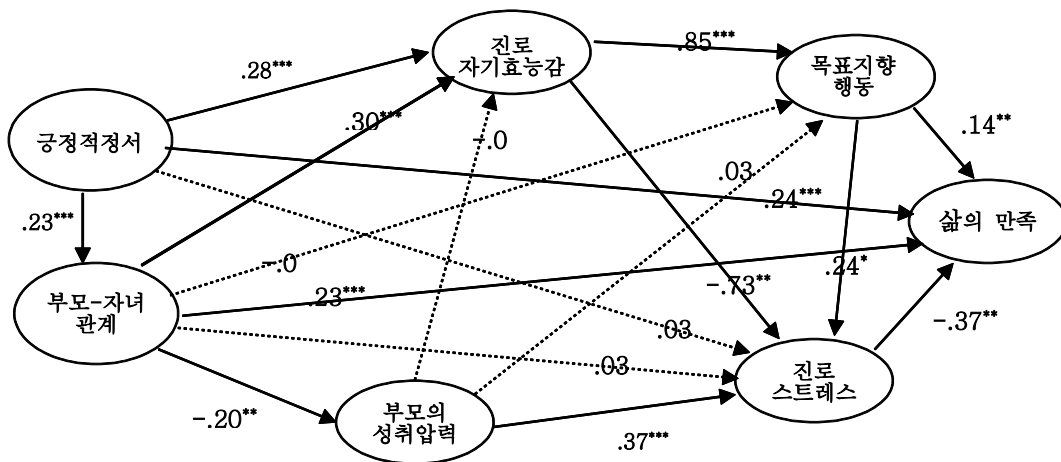


그림 4. 경쟁모형 경로도

주) *** $p<.001, **p<.01, *p<.05$,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표 3. 경쟁모형의 구조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긍정적 정서	→	부모-자녀관계	.34	.06	5.94***	.23
긍정적 정서	→	진로자기효능감	.28	.04	7.32***	.28
긍정적 정서	→	진로스트레스	.01	.02	.57	.03
긍정적 정서	→	삶의만족	.17	.03	6.63***	.24
부모-자녀관계	→	부모의 성취압력	-.17	.03	-5.19***	-.20
부모-자녀관계	→	진로자기효능감	.21	.03	7.44***	.30
부모-자녀관계	→	목표지향행동	-.01	.02	-.53	-.02
부모-자녀관계	→	진로스트레스	.01	.02	.60	.03
부모-자녀관계	→	삶의만족	.11	.02	6.19***	.23
부모의 성취압력	→	진로자기효능감	-.01	.03	-.27	-.01
부모의 성취압력	→	목표지향행동	.02	.02	.86	.03
부모의 성취압력	→	진로스트레스	.13	.02	8.12***	.37
진로자기효능감	→	목표지향행동	.63	.03	19.01***	.85
진로자기효능감	→	진로스트레스	-.33	.05	-6.04***	-.73
목표지향행동	→	진로스트레스	.14	.07	2.01*	.24
목표지향행동	→	삶의만족	.13	.04	3.25**	.14
진로스트레스	→	삶의만족	-.56	.08	-7.32***	-.37
R ²	부모-자녀관계: .054, 성취압력: .040, 진로 자기효능감: .204 목표지향행동: .705, 진로 스트레스: .455, 삶의 만족: .439					

*** $p < .001$, ** $p < .01$, * $p < .05$

치는 직접효과($\beta = .24, p < .01$)는 측정모형에서 두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r = -.38, p < .01$)와 정반대의 부호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변수 간 상관이 정반대로 나타날 때 억제 효과(suppression effect)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Cohen, Cohen, Aiken, & West, 2002). MacKinnon, Krull와 Lockwood(2000)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변인을 설정하면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

인의 관계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설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러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상에 제3의 변인을 투입했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절대 상관이 오히려 커질 경우, 억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조화진, 서영석, 2010; MacKinnon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목표지향 행동이

표 4. 경쟁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와 통계적 유의도

경로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 95%CI (하한계, 상한계)
→	부모자녀관계	.23***	.23***	-
→<	부모자녀관계	.34***	.26***	.06*** (.05, .10)
→<	진로자기효능감, 부모자녀관계>>진로자기효능감	.29***	-	.29*** (.23, .35)
→<	부모자녀관계	-.05***	-	-.05*** (-.07, -.03)
→	진로자기효능감	-.17***	.03	-.20*** (-.24, -.20)
→<	진로자기효능감>목표지향행동, 부모자녀관계>>성취압력	.40***	.24***	.17*** (.13, .30)
→	부모자녀관계, 진로자기효능감>목표지향행동 부모자녀관계>성취압력>진로스트레스	.30***	.30***	-
→	진로 자기 효능감	.25***	-.02	.25*** (.19, .30)
→	성취압력	-.20***	-.20***	-
→<	진로자기효능감>목표지향행동 진로스트레스, 진로자기효능감>진로스트레스	.35***	.25***	.12*** (.09, .15)

금정적
정서

부모
자녀
관계

역제효과를 갖는지 검증해 보았다. 진로 자기 효능감과 목표지향 행동이 진로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목표지향 행동이 매개변인으로서 투입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봄으로써 역제효과를 검증하였다. 진로 자기 효능감에서 진로스트레스 간의 직접효과의 절대 값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beta=-.53, p<.001 \rightarrow \beta=-.79, p<.001$). 또한 목표지향 행동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후 관계의 방향이 정반대가 되었다($\beta=-.19, p<.001 \rightarrow \beta=.32, p<.01$). 이는 진로 자기 효능감과 진로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목표지향 행동의 역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매개 효과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즉 긍정정서는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진로 자기 효능감에 정적영향을, 진로 자기 효능감, 부모-자녀관계→진로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목표지향 행동에 정적영향을,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성취압력에 정적영향을, 진로 자기 효능감, 진로 자기 효능감→목표지향 행동, 부모-자녀관계→성취압력을 매개로 진로 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부모-자녀관계, 진로 자기 효능감→목표지향 행동, 부모-자녀관계→성취압력→진로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진로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목표지향 행동에 정적영향을, 성취압력을 매개로 진로 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진로 자기 효능감→목표지향 행동, 성취압력→진로 스트레스, 진로 자기 효능감→진로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

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자기 효능감은 목표지향 행동을 매개로 진로 스트레스에 정적영향을, 목표지향 행동, 진로 스트레스, 목표지향 행동→진로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 행동은 진로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성취압력은 진로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안녕감 이론을 통합한 Lent와 Brown(2008)을 토대로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처한 상황과 한국의 상호의존적 가족문화를 고려하여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정서,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성취압력, 진로 자기 효능감, 목표지향 행동, 진로 스트레스, 삶의 만족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고등학생 80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정리해 보면 첫째, 부모-자녀 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 관계에 근거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각각 도출하여 구조모형 방정식 검증을 통해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Lent와 Brown(2008)에 근거하여 환경적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가 삶의 만족에 간접적 영향만을 주는 연구모형보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삶의 만족에로의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로를 추가한 경쟁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에게는 부모-자녀 관계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인지 진로변인들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모형의 변인 간 경로와 그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는 부모-자녀 관계, 진로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진로 자기효능감은 목표지향 행동과 삶의 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진로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정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매개로 진로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 부모-자녀 관계→진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목표지향 행동에 정적 영향, 부모-자녀 관계→진로 자기효능감→진로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정서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runs et al., 2008; Diener & Larsen, 1993; Fredrickson, Cohn, Coffey, Pek, & Finkel, 2008), 정서가 환경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손은령, 손진희; 2005; 이혜진, 2005; Heppner, Fuller, & Multon, 1986; Piedmont, 1998; Saks & Ashforth, 2000)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즐거움을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뿐 아니라, 긍정적 정서는 부모를 더 친밀하게 느끼게 하고 허용적이라고 지각하게 하여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목표를 설정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동들을 많이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미래 진로에 대한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낮아져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을 가져오기도 함을 보여준다. 반면 긍정적 정서에서 진로 스트레스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긍정적 정서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Lent(2004)의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고등학생 시기는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진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므로, 긍정적인 정서가 스트레스를 직접 줄이기보다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정서상태가 진로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 진로 목표의식을 갖고 준비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긴장을 줄어 들게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성취압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 진로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성취압력은 진로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 진로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는 성취압력을 매개로 진로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성취압력→진로 스트레스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삶의 만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혜원, 홍미애, 2007; 신미 등,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로서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하고 허용적인 유대관계는 성취에 대한 압력을 적게 느끼게 하고, 진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며 삶의 만족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친밀감이 없이 권위적이고 엄격한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과 기대를 부담으로 느껴 성취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받음으로써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자녀 관계→목표지향 행동, 부모-자녀 관계→진로 스트레스, 성취압력→진로 자기효능감, 성취압력→목표지향 행동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고 부모가 자녀에 헌신한다고 지각할수록 진로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김영혜, 2013)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부모와 친밀한 관계가 진로 준비행동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낮춘다는 연구들(Ferry, Fouad, & Smith, 2000; Rosenthal, 1995)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단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게 되고 진로 준비행동을 많이 하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엄격하고 권위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능력 이상의 부모의 과도한 기대는 진로에 대한 긴장과 불안을 더 증가시키고 부담감을 가중시켜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자녀는 진로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갖게 되고,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행동을 해 나감으로써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아지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 스트레스의 관계를 목표지향 행동이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가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측면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목표지향 행동이 진로 자기효능감이 진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을 축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학생들은 진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진로 준비행동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진로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

로 볼 수 있다.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지각된 진로 장벽이 진로선택 및 실행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Lent et al., 1994). 진로 장벽은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계획이나 환경, 미래 목표의 설정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장애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상황, 가정과 학교 더 나아가 미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의 모든 준비와 실천을 가로막는 것들이다(정효경, 2009). 이러한 진로 장벽은 진로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유진, 2007; 정태욱, 2004; Taveira, Sliva, Rodriguez, & Maia, 1998). 따라서 진로목표를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벽에 부딪힌다면 이는 진로 스트레스가 되고, 진로 자기효능감이 진로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를 축소시킬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상담 전략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친밀하고 지지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통한 진로개입 방안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담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과 응집력을 가지고 자녀의 성공과 성취를 자신의 행복으로 여겨 과도한 개입이나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죄송함으로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삶의 만족감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고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부모들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절절한 진로 개입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진로 역할모델로서 올바른 직업적 가치와 태도,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

녀들이 진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진로 과제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통하여 자녀를 믿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자녀가 직업적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와 관련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자녀들이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가족과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부모-자녀 관계에서 심리적 분리보다는 정서적 친밀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가족 문화의 한국에서 가족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이다(이상훈, 1997).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만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점검하고(황혜자, 김지영, 2001), 부모-자녀 상호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공감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오진아, 2007). 부모들이 자녀의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을 기르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수용함으로써 정서적 지원을 한다면 자녀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진로에 대한 불안과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을 직·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심리적 개입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진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거하고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상담전략이 필요하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을 상담할 때, 적절한 진로 상담 개입을 통해 진

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면 삶에 활력을 주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스트레스의 요인이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일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와 지나친 관심, 부모의 진로 희망이 자녀에게 압력으로 지각됨으로써 진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거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고등학생 내담자들의 경우,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모의 기대가 아닌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특성과 직업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긴장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진로에 관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가정환경의 요인이 아닌 자신에 관한 이해나 진로 정보의 부족 등 일반적 요인인 경우에는 다양한 진로 심리검사, 직업이나 진학 정보 제공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진로 스트레스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진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전략의 개발과 개입이 필요하다. 긍정적 정서, 부모-자녀 관계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진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목표지향 행동을 증진시키고 진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영향 변인임이 증명되었다. 또, 진로 자기효능감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 진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모 진로상담 교육 및 이에 관한 상담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정애와 최웅용(2008)은 진로탐색보다는 진로에 대한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이 진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영혜(2013)은 한국 사회처럼 가족 간 응집력과 부모-자녀 간 일체감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는 가족 가치관이 진로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치 명료화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가치와 자신의 진로 가치를 명료화하고 진로에 대한 방향감을 찾아나가도록 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면 진로 자기효능감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에 대한 방향감과 확신은 목표지향 행동을 더욱 촉진할 뿐 아니라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진로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능력의 한계, 직업이나 진학 정보 부족, 진로 계획의 변경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나 급격한 직업 사회의 변화로 인한 혼란, 진로에 대한 편견, 가정 환경에서 오는 경제적 지지의 결여 및 가족과의 갈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의 진로 준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Lent와 Brown(2008)의 통합 사회인지 진로모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처한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변인을 선정하여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를 주관적 안녕감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진로가 삶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개입이 심리 상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특질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만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Lent와 Brown(2008)에서 제시된 부정적 정서,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과 같은 성격 요인이 다른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목표지향 행동이 역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목표지향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벽에 부딪힘으로써 진로 자기효능감이 진로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를 축소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 장벽 변인을 추가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해 본다면 고등학생의 진로 상담을 위한 더욱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로 자기효능감과 목표지향 행동의 높은 상관은 측정 문항의 유사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 변인의 측정 도구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함에 있어 부모 각각의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는데, 자녀의 부모모와의 애착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이 다르고(김영혜, 2013), 유대관계 지각에도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박성욱, 2005)이 있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문화나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부모의 역할 변화는 부모-자녀 관계 지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후속연구에

서는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진로관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서영자, 2011; 진은아, 2007)을 토대로 변인들간의 영향이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진로지도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영철 (2003).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과 아동의 학업자아 및 부모의 학업성취 압력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1-175.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99-317.
- 김경옥, 조윤희 (2011).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4), 197-218.
- 김보영 (2007). 청소년의 낙관성 수준에 따른 정서표현갈등과 삶의 만족도 차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혜 (2013). 대학생의 부모-자녀유대와 진로결정 관계에서 성취압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정연, 정현주 (2008).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3, 171-190.
- 김지현, 하문선, 김복환 (2011). 청소년의 적응군집화 및 5요인 성격특성이 집단관별에 기여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22(3), 149-174.
-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과 성공압력의 영향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8(5), 49-60.
- 류미화 (2002).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진로결정 스트레스와의 관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박성옥 (2005).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진로의식발달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 심리특성 차이 분석: 생활목표, 가족관련 가치, 학업기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4), 79-113.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5(1), 94-118.
- 서영자 (2011).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만족도와 진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유진 (2007).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 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신 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오선향 (2002).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진아 (2007). 어머니의 성인애착 및 공감능력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내은 (2003).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훈 (1997). 가족지향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개인성장과 가족 기능성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대학 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 이순성 (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연옥 (2011). 청소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애 (2009).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직업희망가능성이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애, 최용용 (2008). 진로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1), 129-146.
- 이현정 (2008). 일반계 고등학생의 긍정적 정서, 몰입, 삶의 의미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주 (2012). 청소년의 진로스트레스, 분노표현방식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9(1), 75-93.
- 정미예, 조남근 (2011).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서 본 대학생의 진로 만족 모형. 청소년학연구, 18(10), 295-316.
- 정미예, 조남근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한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 예측모형. 상담학 연구, 13(2), 401-415.
- 정소미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우울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검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선 (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태욱 (2004). 전문대학생의 취업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효과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효경 (2009).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자기격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진은아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아 (2012). 고등학생의 교과별 학업에 대한 정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신아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지 (2004). 부모의 사회적지지 및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7).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척도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2), 45-56.
- 황정규 (1997).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심리적 건강, 신체 건강: 심리·사회적 형성 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청소년문화*, 291-344.
- 황혜자, 김지영 (2001).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인성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개관.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29(1), 79-96.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Brunstein, J. C. (1993). Person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061-1070.
- Burns, A. B., Brown, J. S., Sacjs-Ericssons, N., Plant, E. A., Curtis, J. T., Fredrickson, B. L., & Joiner, T. E. (2008). Upward spirals of positive emotion and coping: replication, extension, and initial exploration of neurochemical substr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360-370.
- Cheatam, H. E. (1990). Afrocentricity and career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In R. J. Drummond & C. W. Ryan (Eds.), *Career Counseling: A development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 Cohen, J., Cohen, P., Aiken, L. S., & West, S. G. (2002).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5), 1105-1117.
- Diener, E., & Larsen, R. J. (1993). *The experience of emotional well-being.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405-415.
- Diener, E. & Lucas, R. E.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Russell Sage.
- Elliot, A. J., Sheldon, K. M., & Church, M. A. (1997). Avoidance person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915-927.
- Ferry, T. R., Fouad, N. A., & Smith, P. L. (2000). The role of family context in a social cognitive model for career-related choice behavior: A math and science perspective.

-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3), 348-364.
- Fredrickson, B. L., Cohn, M. A., Coffey, K. A., Pek, J., & Finkel, S. M. (2008). Open hearts build lives: Positive emotions, induced through loving-kindness meditation, build consequential personal re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5), 1045-1062.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Psychological Developmental Psychology*, 63(1), 103-115.
- Gainor, K. A., & Lent, R. W. (1998). Social cognitive expectations and racial identity attitudes in predicting the math choice intentions of Black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403-413.
- Gati, I., Garty, Y., & Fassa, N. (1996). Using career-related aspects to assess person-environment fi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196-206.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33-456.
- Lent, R. W. (2004). Toward a unify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on well-being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482-509.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Lent, R. W., Singley, D., Sheu, H., Gainor, K. A., Brenner, B. R., & Treistman, D. (2005).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domain and life satisfaction: Exploring the theoretical precursor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429-442.
- Lent, R. W., Singley, D., Sheu, H., Schmidt, J. A., & Schmidt, L. C. (2007). Relation of social cognitive factors to academic satisfaction i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87-97.
- Lent, R. W., Tavieria, M., Sheu, H., Singley, D., & Hennessy, K. (2006). *A longitudinal test of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satisfaction and adjustment in Portuguese college students*. Manuscript in prepar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Lightsey, O. R., & Boyraz, G. (2011). Do Positive Thinking and Meaning Mediate the Positive Affect-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3(3), 203-213.
- Luzzo, D. A. (1993). Value of 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94-199.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Rosenthal, B. S. (1995).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school completion among Haitians. *Social Work in Education*, 17, 30-39.
- Saks, A. M., & Ashforth, B. E. (2000). Change in job search behaviors and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Vocations Behavior*, 56, 277-287.
- Shrout, P. E., Bolger, N. (2002). Mediation in

-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aveira, M. D. C., Silva, M. C., Rodriguez, M. L., & Maia, J. (1998).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areer exploration in adolescenc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Counselling*, 26(1), 89-104.
- Tunmer, S. L., Alliman-Brissett, A., Lapan, R. T., Udipi, S., & Ergun, D.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2), 83-9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원 고 접 수 일 : 2014. 0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9. 15

게 재 결 정 일 : 2014. 09. 27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
betwee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Variabl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Application of Integrated Social Cognitive Career Model

Kyung-a Jang

Jee-Yon L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positive emo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career self-efficacy, goal-oriented behavior, and career stress, and the life satisfaction. The study subjects were 804 male and female students whose schools were general high schools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analysis based on the 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showed that the competition model including the direct path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the satisfaction with life was more fitted to the data than the original model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career self-efficacy, goal-oriented behavior, and career stress significantly showed th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emot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Implication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Satisfaction with Life, parent-child relationship, career stress, Theory of Integrated Social Cognitive Career Choice